이 세상만사가 다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백지장 사이를 몰라서 모두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좌선해 나가시는 거, 그것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렇게 얍상해서 앉아서 좌선을 하면 '앉아서 좌선을 내가 해야지.' 하고 합니다. 그건 말 안 해도 뜻으로 벌써 '어휴, 내가 이거 할 시간인데.' 하고 합니다. 다 했으면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일어나서 뭐 해야지.' 하고 인제 합니다. 그러면 좌선할 때만 지구가 돌아가지 좌선 안 할 땐 안 돌아가나요? 항상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도루묵쟁이. 그러니 앉는다는 생각도 선다는 생각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못 하는 거 하는 거 따로 없다. 행선 해도 행선이요, 좌선 해도 좌선이요, 입선 해도 입선이요, 드러누워서도 와선이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살아 보시죠? 그런데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게 전체가 참선 아닌 게 없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 불당에만 가야만이 또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부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부처는 거기 있는 겁니다.

주인공을 찾는데도…

질문 주인공 관법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다 보니 처음에는 좀 되는 듯하더니 지금은 주인공을 찾는데도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러니저러니, "나는 주인공을 찾는데도 이렇게 안 됩니다.", "주인공을 찾았더니 잘되다가 또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 발짝 떼어 놓는 거만 알았지 한 발짝 또 놓고 드는 것을 몰라서 그런 소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짝을 들었으면 한 발짝은 놓고 한 발짝 들었으면 한 발짝 놓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드는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놓는 것도 알아야 들고 놓고 들고 놓고 하는 작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주인공을 찾으니까 어느 만큼은 되더니 또 안 되더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알아야지 전진하기만 하면 빠져 죽죠? 때에 따라서는 전진하기만 하면 구덩이에 빠질 텐데 그때는 물러서야 빠져 죽지 않죠? 그러니 드는 것도 법, 들지 않는 것도 법.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한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도 법이라고 했느냐. 구덩이에 빠지겠으니까 빠질 일은 물러서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물러서서 다시 굴려놓으면 빠지지 않을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지혜롭게 잘 굴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몸만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천차만별로 아픔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 아픔이라는 재료가 지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 길에 들어선 걸 뜻합니다. 그냥 맨손으로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들어선 겁니다. 그 재료가 아니면 이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살지.' 하는 마음이면 이 길을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모든 것은 공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얘길 하지만 프로펠러 돌아가는데, 그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기에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습니까? 네? 먼지 앉을 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이 났다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겼다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당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병났다, 모두가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고 했죠. 그걸 짐작하시죠? 고정됨이 없이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고 만나고 먹고,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 반시도 그냥 고정되게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겠느냐 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가져오는 그 재료를 보면 모두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것이 마음에 따라서 부딪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서 나한테 자꾸 연관이 되는 거니까 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말입니다, 내 몸속에 들어서 자꾸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업식이라고 하고 업보라고 하고 유전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다 '아픔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긴 거다. 업보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고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게도 준 것이다. 이끌어 주는 재료가 주어진 거다.'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한테다 맡겨 놓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 인간이란 99%를 바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 그런데 한 장의 백지장 사이를 몰라서 모두
>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틀고 앉아서 '이게 뭣고?'라든가, 의정을 강제로 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다면 그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며 그 근본을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그냥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이렇습니다.' 하지 말고,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없는 것을 찾는 것이라야 이게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암흑 속에서 밝음이 불끈 솟아서 불이 일어나면 모두가 밝게 살듯이 말입니다.

공덕이 되게끔 공양을 올리려면

질문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전이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때 대부분은 원하는 것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리는 공양이 정말 공덕이 되려면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하는지요.

답변 이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생이면서 공심이고, 공심이면서 공체고, 공체면서 공용이고, 공용이면서 공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심으로서 해야 공덕을 받지 공심이 아니라면 공덕이 안 됩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없다고 말한 원인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시의 물 한 그릇 가지고도 영령들의 큰 목욕탕이 될 수 있고 꽃 한 송이 가지고도 영령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양이에요, 꽃공양. 향공양, 모두가 공양. 그래서 이 공양을 정말 알고 내려 먹는 사람은 그건 제 밥 제가 내려 먹는 거고, 알지 못하고 그냥 부처님 밥 먹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밥을 자기가 내려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에서 공양 올린다 하는 것도 이게 전부 도의 길입니다. 그 뜻이 뭔지 모르니 걱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해서 공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이게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되지 공심이 아니고 그냥 갖다가 내 아들 내 남편, 뭐, 그러니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덕으로 적용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 마음도 그래요, 벌써 쌀을 갖다 놓고 초를 켜고 그럴 때 이 촛불을 켜는 게,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나면 내 이 몸이 타서 깎아지는 듯한 그 애처로운 그 마음으로서, 그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지, 부처님께서 공심인데 내가 공심이 아니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이 발우공양도 공양이라고 그러죠. 왜 공양이라고 그랬느냐. 스님네들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네들은 곤충의 바가지예요. 중생들의, 즉 말하자면 주머니들이란 말입니다. 그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그거를 넣어요. 주머니 구멍 뚫린 데로 넣는다고요. 거기서 들 죄 제가끔들 모두 먹는 겁니다. 그러고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이 사람 하는 행동 따라서 그 의식도 다 거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먹기 싫어도 주는 대로 먹는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깐 살기 위해서 우리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머니라는 걸 몰라요, 모두. 곤충의 주머니라는 걸 하나도 납득을 못 해요. 그런데 그 구멍 뚫린 데다가 넣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 속의 곤충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의 독이 있는 곤충의 주머니냐, 독이 없는 곤충의 주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저 독이 있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이 생산이 되는 거고 독이 없는 주머니에서는 독성 있는 데 잡아먹히고 이러더라도 선의가 발생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신계에서 정신을 뺏어 먹고 사는 거니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계의 내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정신을 뺏어먹고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육이 있는 거는 육을 뺏어먹고 죽이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을 뺏기고 그때서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옛날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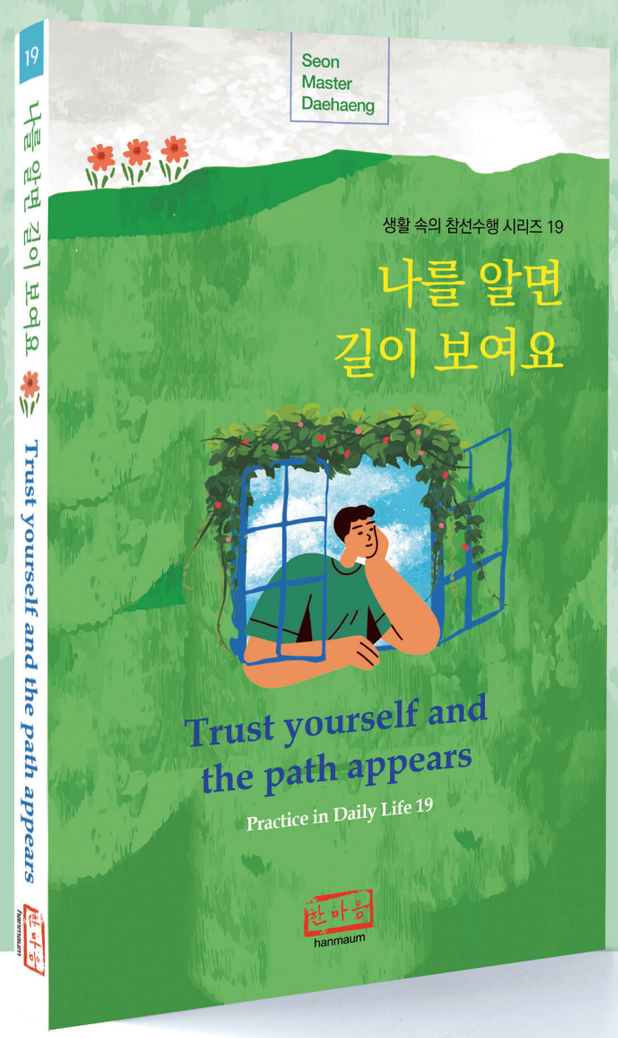
그러니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의 곤충의 주머니를 다 벗어 버리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나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그대로 놓고 가야 한다. 그대로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그냥 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성을 내고 하면 저쪽도 감촉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곤충이 빨리 이게 진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 빨리 되려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을 이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둘이 아니고,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믿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그 믿어지는 거 그 방망이 하나면 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방망이,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